



정기 및 불시감사를 통해 본
의식 개혁의 해

박철동
건협 감사실장

1995년도는 본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온 해입니다. 본회 정기이사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임된 임한중 회장, 성정용 사무총장이 취임하셨고, 때를 같이 하여 “95년도는 의식개혁의 해”로 슬로건을 삼아 깊은 잠에서 깨어나 새롭고 활기차게 변화하려는 굳은 의지로 대대적인 인사이동을 단행하였습니다.

자체 직원에서 사무총장까지 취임된 점, 그리고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인사이동 등 실로 커다란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계승시켜야 할 임무를 우리 협회 직원 모두는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전국 시, 도지부 전직원이 모이는 설악산 연수교육에서 “지금까지의 잘못된 점은 용서할 수 있으나 앞으로의 잘못된은 용서하지 않을 방침”을 사무총장이

강조하였습니다.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에서 깨어나 주변 변화에 따라 우리도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우니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일일결산을 생활화하며 주인의식을 높여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협회가 살아갈 길을 찾아야 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되며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요소요소에 점검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감사실에서는 협회 창립이래 처음으로 전 지부를 대상으로 불시에 일상감사를 실시하였고 정기감사도 몇 지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지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교육도 철저히 시행하면서 새로운 자세로 임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효율성에서는 거리가 멀어 의식개혁

이란 단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95년도가 저물어가는 차체에 우리 모두가 웃음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지난 날들을 되새기며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반성만 해서도 안됩니다. 새로 태어나야 합니다.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필요한 때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는데”, “내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데”, “위에서 하라는대로 하면 되지”, “같은 직원인데 설마” 등 강건너 불구경하듯, 자기는 협회 구성원이 아닌 듯 행동하는 구습이 아직도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배를 탄 이상, 이 배가 험난한 파도를 헤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데 도중에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어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침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침몰 후 원망이나 후회는 아무 가치조차 없으므로 맡은 바 직무를 물론 배의 전체적인 구조와 취약한 부분을 모두가 다 알고 미리미리 대처하는 습관이 몸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보건·의무직이라 해서 행정은 전혀 모른다든지 반대로 행정·기능직이라 하여 검사종목과 그 검사를 왜 하는지조차 몰라서야 어찌 한 배를 탔다고 하겠으며 전직원 홍보요원화를 언제 실현하겠습니까. 한국건강관리협회 직원이라면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모른체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까. 협회 직원이라면 1인 3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합니다.

어느 사회에 살더라도 늘 연구하고 배우지 않으면 자신의 직분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는 날로 발전하여 앞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서있는 자는 자연히 뒤로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연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남보다 강하게 가지고 실천에 옮겨 결실을 맺을 때,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 국가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며 인생의 보람이기도 한데 우리 협회 일부 직원들은 너무 안일무사하게 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각자의 마음을 혁신하고 각종 불합리한 제도도 과감히 개선하며 '95년도를 알차게 보내고 '96년도는 새로 태어나는 신한국건강관리협회가 되어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만한 거대한 업적을 남기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끝으로 우리협회 직원이라면 직능을 가리기 전에 누구나 알아두어야 하겠기에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제작 사용하고 있는 검사항목에 관한 기초적 해설을 소개하니 외우거나 잘 숙지하여 누구와 상담해도 소신있게 설명할 수 있는 건협 직원이 됩시다.

그리고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95년도는 의식개혁의 깃발아래 일일결산 생활화와 친절교육을 강화하여 대민봉사에 선구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㉔